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과 동기이론 결합모형을 토대로

이용규* · 송용찬

논문 요약

기부동기와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합한 기부에 대한 동기-감정-행동모형을 구성하여 한국인의 기부행동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탐색한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부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기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고, 둘째, 기부에 대한 내적 동기는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외적 동기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기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지각된 행동통제만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넷째, 기부동기가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기부의도에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지각된 행동통제만을 매개로 기부의도에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기부행동에는 기부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반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여섯째, 기부의도에 개인적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제어 : 기부의도, 계획된 행동이론, 동기이론

* 제1저자

I. 서론

1980년대 세계경제 침체 이후 국가의 재정위기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정부 실패 영역을 민간이 보완하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체제로의 변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서 성숙한 사회로의 진입과 경제 공동체의 실현 차원에서 기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3섹터의 비영리조직을 매개로 민간의 기부활동이 활발했던 미국은 정부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 사회적 인프라 구축, 관리감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도 2000년대 들어 자발적 기부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득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수요의 총량이 확대되어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에 의한 기부의 활성화가 중요시 되면서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통과되었고, 2005년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기부관련 법제가 대폭 정비되었다. 2009년 현재 한국인의 기부 및 일반자원봉사의 금전적 가치는 약 8조 4천억 원으로, 정부예산의 약 3.1%, GDP대비 0.79% 규모였다. 2009년 정기기부참여비율은 24.2%로 2007년 대비 7.6%가 증가했고, 정기기부 참여빈도 또한 2009년 84.1%로 2007년 대비 10.6% 증가하는 등 기부문화의 질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기빙코리아, 2010).

그럼에도 2010년 세계기부지수(영국 자선구호단체 CAF와 갤럽 공동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53개국 중 81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발전·경제수준에 비해 기부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기부노력이 선진국들에 비해 미약한 상황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09년 기부금 총액 중 개인 기부금의 비중은 30%에 불과하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 아울러 기부의 형태도 정기적 기부보다는 일회성 기부가 보다 보편적이다. 그러므로 부유층의 계획된 개인적 기부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아름다운 재단, 2010).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거시적으로는 산업화의 역사, 문화적 차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기부동기를 부여하고 기부문화를 사회저변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한국인은 옛날부터 불쌍한 이웃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어왔다. 따라서 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에 따라 상당한 부를 축적한 노인층이 형성되어 있어 기부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기부 전략만 잘 수립한다면 적극적인 개인기부자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사회의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기부문화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학문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개인기부에 대한 외국의 실증적 연구는 주로 ‘기부금액’의 결정요인에 집중되어 왔고, 연구의 초점은 정부의 세금유인(tax incentives)이 기부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를 갖는지의 여부였다(박태규 등, 2008). 또한 사회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이타성이 공감과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동기에 의해 기부를 동기화한다고 설명하였다(김정훈, 2011). 기부에 관한 정부통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행동에 대한 실증분석은 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연구주제는 기부의도, 기부행동 등 기부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 집중되고 있었다(황창순·강철희, 2002; 조선주·박태규, 2007; 박태규 등, 2008; 김영기, 2011). 최근 들어서는 기부행동의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기부 동기화 가능성에 대한 한승희(2011)의 연구, 기부지역 선택행동에 대한 강철희 등(2011)의 연구, 돈 태도 유형이 기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김정훈(2011)의 연구는 한국인의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기부행동은 인간의 합리성이 전제되는 사회적 행동이다. 기부행동을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한 소수의 연구들(이정기·정은정, 2011; 김혜인·차희원, 2010)을 보면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인지된 행위통제와 같은 심리변인, 주관적 규범과 같은 타인 지향성 등이 기부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계획된 행동이론에 대한 수정이론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윤리적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있어서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는 중요하지 않으며 대신 윤리적 의무와 윤리적 정체성 등 다른 변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Shaw and Shiu 2003). 이러한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는 기부행동 분야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의 체계적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인간의 행동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뿐 아니라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의 영향을 받는다(Deci, 1971). 금전적 보상이 언제나 인간 행동의 동기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외재적 동기들이 때로는 내재적 동기를 낮춤으

로써 오히려 과제수행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Deci, Koestner and Ryan, 1999). 이는 개인의 기부행동 결정과정에서 동기의 역할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부동기와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합한 기부행동모형을 설정하여 한국인의 기부행동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기부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실증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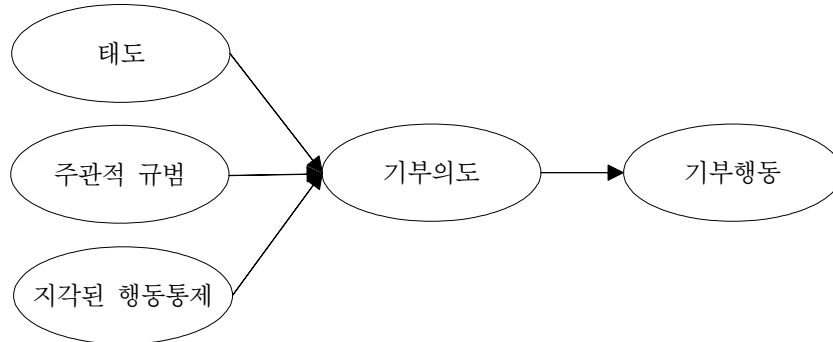
II. 이론적 고찰

1.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가능성

Ajzen & Fishbein(1980)에 의해 제안된 합리적 행동이론(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은 개인의 행동이 의도에 의해 결정이 되고, 이러한 의도를 개인의 태도와 사회의 주관적 규범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 합리적 행동 이론은 윤리적 의사 결정분야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나 예상치 못했던 장애나 자원의 부족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결단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 모형의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송갑호, 2010). 이에 Ajzen(1991)은 자신의 합리적 행동이론을 확장하여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제시하였다. 즉, 인간의 사회문화적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지각된 행동통제를 추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가질수록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클수록 개인들이 어떤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는 커지게 된다.

계획행동이론에 기초한 행동예측 관련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행동, 행동의도,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건강보건 관련 분야에서는 음주운전, 흡연, 폭음행위 등의 행동의도를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었다(이정기·정은정, 2011). 경영학 분야 TPB 모형이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유용성이 입증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



되기도 하였다(Harrington, 1996; Banerjee, 1998). East(1993)는 TPB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모델이라고 주장하였다. Chang(1988)은 비윤리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TRA와 TPB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태도, 규범, 행동통제, 의도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TPB가 보다 우수한 모형 적합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정기·정은정(2011)의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변인은 기부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집단 규범과 도덕적 규범 변인은 기부의도에 계획행동이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변인에 비해 더욱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송갑호(2010)의 연구에서도 TPB 모형의 개인적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비윤리적 컨설팅 수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 변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의미 있는 이론으로 입증되고 있다. 한편, 다수의 연구자들이 계획된 행동이론에 과거경험, 도덕적 의무, 도덕적 판단, 조직의 윤리문화, 인식 등 외생변수를 포함시켜 보다 확장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Cronan & Al-Rafee, 2008; Shaw and Shiu 2003). 이러한 시도의 결과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외의 추가된 변수들은 이들 변수와 연관되어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을 토대로 기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변수들이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추가적으로 기부동기와 기부의도 등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2. 기부동기이론의 접목가능성

기부 동기의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개인의 기부 동기를 크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적 동기는 내재적 요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종교적 신념, 동정심, 행복감 등이며, 외적 동기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경제적 여유, 세제혜택, 타인으로부터의 요청,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등이다(강철희 외, 2011). 강철희 등(2011)의 연구에서 내적동기(동정심), 외적동기(경제적 여유, 세제혜택, 주변인물의 요청, 가족의 전통과 문화), 기부 시 고려사항(기관의 신뢰성, 우리사회 개선효과)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김주원·김용준(2008)의 연구는 자선단체기부자들이 감성적인 동기보다는 이성적인 동기를, 이기적인 동기보다는 이타적인 동기를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냈다. 따라서 이미 입증된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동기요인은 기부의도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진다.

1) 내적 동기

사회적 책임감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통상적으로 기부자들은 자신들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고 실현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기부 행동을 하게 된다(Bekkers and Wiepking, 2010). 아울러 Cheung and Chan(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기부 의사 및 기부 행동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를 전체로서 바라보며 이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가질수록(Schuyt et al., 2010; Bekkers and Wiepking, 2010 재인용), 기부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부를 통해 돌아오는 심리적 행복감은 기부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동기로 밝혀져 왔다. 심리적 행복감과 기부 간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에 따르면, 기부를 함으로써 기부자는 긍정적인 기분과 죄의식의 완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며(Bekkers and Wiepking, 2010), 이로 인해 기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부행동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Havens 외(2007)는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종교적 신념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부 참여를 높이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나(Bekkers, 2005),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가 대체재 기능을 하여 세속적 기부 수준을 낮추기도 한다(Suzanne and Charles, 2008). 한편, 종교적 신념이 일반 사회를 위한 기여와 연계되어 보완재로서 기능하기도 하므로(Lam, 2002), 기부 행동에 있어 종교적 신념의 영향은 보다 다각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동정심도 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웃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동정심이야말로 자선적 행동의 중요한 선행요인이라고 꼽히기도 한다(Bekkers, 2007; 강철희 외, 2009 재인용).

2) 외적 동기

기부를 이끄는 외적 동인은 해당 국가의 기부정책, 기부문화 등 매우 광범위하다. 다양한 정부정책 중에서도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제혜택은 비용의 시각에서 설명되기도 하는데, 기부는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기부 비용이 낮아질수록 기부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세제혜택으로 인해 기부에 소요되는 실질적 경제적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기부는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Eckel and Grossman, 2003, 2004; Karlan and List, 2006).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있다. 즉, 조선주(2006)의 연구에서도 기부행동에 있어 세제혜택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선주, 2008).

그러나 금전적 인센티브보다 기부라는 인센티브가 업무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기부에 참여하는 자선 단체에의 기부라는 비금전적 인센티브에 노출된 피험자들의 과제 수행의 의욕이 개인적인 보상이라는 금전적 인센티브에 노출된 피험자들의 과제 수행보다 월등하였다. 또한, 금전적 인센티브에 노출된 피험자들에 비해 비금전적 인센티브에 노출된 피험자들이 과제 수행 이후 자신의 경험이 더욱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차후에 훨씬 적은 금액의 보상을 받고도 기꺼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승희, 2011). 이처럼, 세제혜택은 기부자에 따라, 세제혜택의 규모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다른 내적동기와 결합하여 상승 작용을 하기도 한다(강철희 외, 2009).

나눔에 대한 가족의 전통과 문화 역시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기부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The Philanthropic Initiative(2004)의 부유층 기부행동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유층 기부 동인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의 기부전통에 대한 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자선연구센터의 2007년 조사에서도 많은 가족에서 기부과정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자선활동에 있어서 자녀와 상의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녀들에게 자선활동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가족의 전통과 학습은 기부에 대한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강철희 외, 2009).

이와 더불어 기부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 타인으로부터의 기부 요청이다. 대다수의 기부는 내적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타인으로부터의 기부 요청에 반응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부 요청이 가장 강력한 외적 동기가 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Bekkers, 2007). 즉, Bekkers(2005)는 2002년 Giving in the Netherlands Panel Survey에서 최근 이루어진 기부의 86%가 요청이 있는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실제로도 자선적 기부 요청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선적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iepking and Maas, 2009).

3. 기부동기와 계획된 행동이론의 연관성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시한 Ajzen(1991)은 원래 기존에 있는 변수가 고려만 되면, 계획행동이론은 의도나 행동에 유의미한 설명력 증대를 조건으로 한 추가적인 예측변수에 개방적이라고 하였다(이재석·이충기, 2010). 합리적 행동이론에 지각된 행동통제 개념을 추가로 하여 확장된 이론이 계획된 행동이론이다. Phillips(2009)는 계획행동이론이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정보적, 동기적 영향을 모두 다루고 있지만, 동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 동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행동이론과 더불어 동기가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Dawson et al.(1990)의 동기-감정-결과 모형(Motive-Emotion-Outcome Model)은 고객의 쇼핑 동기가 쇼핑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구매나 재방문 의도와 같은 행위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동기-감정-결과 모형은 독립 변수(predictor)로서 쇼핑 동기가 결과 변수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주로 매개 변수(mediator)인 다양한 쇼핑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 최종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즉, 소비자의 쇼핑 동기는 소비자의 쇼핑 현장에서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감정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태도를 개인의 어떤 행위를 긍정·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으로 정의하면, 동기-감정-결과 모형을 기부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기부에 대한 동기-기부태도-기부의도로 이어지는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을 구성하여 기부동기와 태도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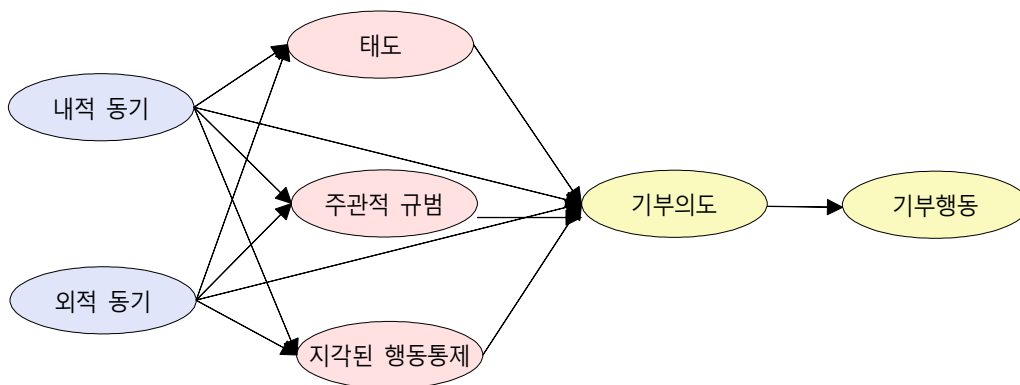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의 개발

기본적 연구모형은 TPB 모형의 예측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기부행위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Ajzen(1991)이 발표한 이후에 여러 분야의 연구에 인용되어 검증되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기본 변수 외에도 이 변수들을 설명하는 외생 변수들을 추가하여 검증하였다. 특히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Randall & Gibson, 1991; Harrington, 1996; Banerjee, 1998). 또한 Ajzen의 TPB 모형에서는 행동의도가 행동까지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행동인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동기요인을 포함하는 확장된 연구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구체적 관계는 <그림 2>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 연구모형



2) 가설의 설정

(1)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초한 가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신념을 의미한다. 태도는 사회심리학에서 오랫동안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변수이다(Fishbein & Ajzen, 1975). 태도와 행동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태도변용이 행동변화를 이끈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연구(Beisecker & Parson, 1972)가 이루어졌으나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는 낮거나 부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O'keefe, 1990). 이에 계획행동이론은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통해 매개되며 최종적으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관한 기대를 뜻하여 특정 행동에 수반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지각인 규범적 신념을 나타낸다(최영정, 2009). 태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규범도 직접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의도를 통해 영향을 준다(Ajzen, 1991).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는 Murray와 Schlacter(1990), Houston(1992) 등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계획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특정행동에 필요한 기술·자원·기회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Ajzen & Madden, 1986). 지각된 행동통제는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가설 1. 기부에 대한 태도는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부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기부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기부동기의 영향에 대한 가설

기부행동에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다양한 변수들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왔다. 내적 동기와 관련하여서는 시민으로서의 책임감(Cheung and Chan, 2000), 종교적 신념(Bekkers, 2005), 동정심, 행복감(Bekkers and Wiepking, 2010), 경제적 여유(Havens et al., 2007) 등, 외적 동기로 분류할 수 있는 세제혜택(Karlan and List, 2006), 타인으로부터의 요청(Bekkers, 2007),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강철

회 외, 2009), 타인의 영향 등과 같은 요인이 기부를 이끄는 주요 동인으로 밝혀져 왔다. Phillips(2009)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카지노 방문동기를 추가한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의 분석결과 동기도 노인들의 카지노 방문의도를 잘 설명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기부의 내적 동기는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기부의 외적 동기는 기부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쇼핑행위에 적용된 동기-감정-결과 모형을 기부행동의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동기-감정-결과 모형에 따르면 쇼핑 동기가 쇼핑의도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주로 매개 변수(mediator)인 다양한 쇼핑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 최종 쇼핑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기부동기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매개로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변수의 구성

본 연구모형에서 조사변수는 내적·외적 기부동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기부의도, 기부행동의 7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동기는 외부의 보상이나 강요 없이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Harter, 1981), 외적 동이란 기부를 수단적으로 이용하여 외적보상을 받기위해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Deci & Ryan, 1987) 정의한다. 개인의 태도는 개인의 어떤 행위를 긍정·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으로 정의하고,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사회적 규범 준수와 관련해 받는 심리적 압력으로 개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 그 개인에게 중요한 사람(가족, 친구, 동료 등)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인식(perception)으로 정의하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인이 행동을 수행함이 얼마나 쉬운지에 관한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한다. 의도는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중심요인으로 기부 의도는 개인이 특정 기부 행동을 기꺼이 하려는 정도로 정의한다. 기부행동은 기부의 실제적인 실행으로 정의한다.

이중 내적·외적 기부동기에 대한 설문은 강철희 교수가 Giving Index를 분석하면서 사용한 기부동기 문항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기부 의도 등 계획된 행동이론에 관한 설문문항은 최영정(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기부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크론바하 알파값이 0.623에서 0.876에 이르고 있어 사회과학에서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 1> 조사도구의 항목 및 신뢰도

구분	변인	문항수	신뢰도
선행변수	내적 동기	4	.623
	외적 동기	5	.806
	태도	4	.876
	주관적 규범	4	.850
	지각된 행동통제	3	.712
종속변수	기부의도	4	.869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자료의 수집방법

일반인들의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 10일에서 11월 5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도권에 소재하는 2개 대학에서 조사방법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조사원으로 하여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36부를 회수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보면, 여성이 223명 51.1%, 남성이 213명 48.9%로 나타났고, 연령은 30대가 39.0%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102명 23.4%, 50대 이상 85명 19.5%, 40대 79명 18.1%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06명 47.5%로 가장 많았고, 고졸, 전문대졸, 대학원 재학이상이 각각 76명 17.5%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를 보면, 기혼이 254명 59.2%, 미혼이 175명 40.8%였고, 월 소득수준은 200-400만원이 161명 37.3%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인 123명 28.5%, 400-600만원 96명 22.2%의 순을 보였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여성	223	51.1
	남성	213	48.9
연령	20이하	102	23.4
	30대	170	39.0
	40대	79	18.1
	50대이상	85	19.5
학력	고졸	76	17.5
	2년제대졸	76	17.5
	4년제대졸	206	47.5
	대학원재학이상	76	17.5
결혼여부	미혼	175	40.8
	기혼	254	59.2
월소득	200만원미만	123	28.5
	200-400만원	161	37.3
	400-600만원	96	22.2
	600-800만원	26	6.0
	800-1000만원	13	3.0
	1000만원이상	13	3.0
합계		436	100.0

2) 자료의 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0과 AMOS 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먼저 SPSS 20프로그램을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측정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AMOS 20을 이용하여 기부에 대한 동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기부 의도, 기부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부관련 요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을 확장한 내적·외적 기부동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기부의도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3>과 같다. 결과를 보면, 기부에 대한 태도가 3.922로 1-5의 리커트 5점 척도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외적 동기는 2.60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내적동기	430	3.054	0.819
외적동기	422	2.609	0.728
태도	432	3.922	0.699
주관적 규범	425	3.303	0.826
지각된 행동통제	432	3.282	0.762
기부의도	433	3.378	0.835

2. 구조방정식 분석

연구모형에서 선정한 기부의 내적동기와 외적 동기, 기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기부행동으로 구성된 모형의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는 다음 <표 4> 및 <그림 3>과 같다.

공분산 구조분석에서 적합성 검증은 모델의 부합지수와 경로계수에 의해 검증되어진다. 우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경로모형의 적합도지수를 보면, X^2 값은 797.520, X^2/df 는 3.067, GFI는 0.866, RMR은 0.062, CFI는 0.892, RMSEA는 0.069 등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값보다는 다소 낮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의 구조적 통합성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 4>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CMIN	DF	P	CMIN/DF	RMR	GFI	NFI	CFI	RMSEA
797.520	260	.000	3.067	.062	.866	.849	.892	.069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해 요인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먼저 기부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기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기부에 대한 내적 동기는 기부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외적 동기는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기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행동통제만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가설 4만이 검증되었고, 가설 1, 2, 3, 5는 기각되었다.

기부동기가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기부의도에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고, 지각된 행동통제만을 매개로 기부의도에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가설 6은 일부 검증되었다.

기부행동에는 기부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반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표 5>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

영향의 방향			Estimate	S.E.	C.R.	P
내적동기	→	태도	1.871	0.259	6.495	***
외적동기	→	태도	-1.571	0.197	-5.684	***
내적동기	→	주관적규범	1.845	0.444	6.998	***
외적동기	→	주관적규범	-1.324	0.33	-5.335	***
내적동기	→	지각된 행동통제	1.409	0.219	5.646	***
외적동기	→	지각된 행동통제	-0.857	0.149	-3.969	***
태도	→	기부의도	-0.405	0.408	-1.411	0.158
주관적규범	→	기부의도	-0.442	0.284	-1.183	0.237
지각된 행동통제	→	기부의도	-0.452	0.235	-2.808	0.005
내적동기	→	기부의도	4.342	2.175	2.556	0.011
외적동기	→	기부의도	-3.349	1.4	-2.418	0.016
태도	→	기부행동	-0.037	0.219	-0.494	0.621
주관적규범	→	기부행동	-0.02	0.146	-0.209	0.835
지각된 행동통제	→	기부행동	0.156	0.22	2.113	0.035
기부의도	→	기부행동	0.405	0.164	5.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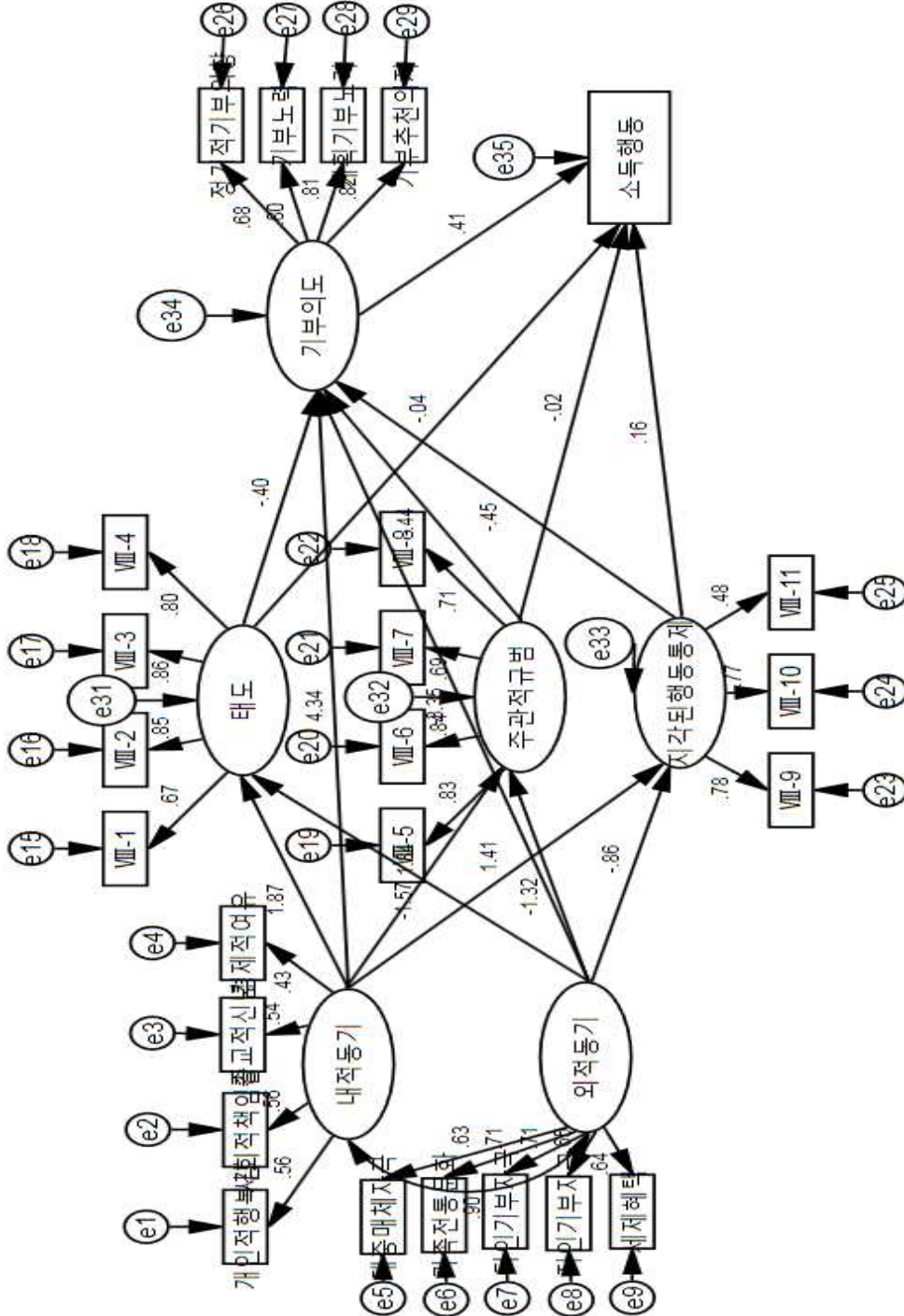
3. 기부 의도 세부 영향요인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기부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구성요인들이 기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세부 구성항목을 독립변수로 하고 기부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고($F=14.266$, $p=.000$),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세부구성요인은 기부 의도의 23.5%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를 보면, 개인적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여유와 대중매체 자극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동정심, 가족전통문화, 타인기부자극, 지인기부자극, 세제혜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Bekkers와 Wiepking(2010), Cheung과 Chan(2000)의 연구, 심리적 행복감의 긍정적 영향을 제시한 Bekkers와 Wiepking(2010)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동정심이야 말로 자선적 행동의 중요한 선행요인이라고 꼽은 Bekkers(2007)의 연구와는 상반되고 있다. 또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사람들의 기부가 증가하게 된다는 Eckel과 Grossman(2003, 2004), Karlan과 List(2006)의 연구와는 상반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부행동에 세제혜택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조선주(2008)의 연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부유층의 기부 동인 중 가족의 기부전통에 대한 충성이 중요하다는 미국과 다르게 가족전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개인들의 기부 의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부에 따른 개인적 행복감, 기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과 종교적 신념을 강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기부자의 경제적 여유나 대중매체를 통한 기부 홍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기부 의도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세제혜택을 초점을 둔 정부의 기부증대 방안이 크게 효과를 가지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3> 구조방정식 모형



<표 6> 기부의도 영향요인 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295	.172		13.369	.000
동정심	-.030	.035	-.037	-.844	.399
개인적 행복감	.285	.041	.339	6.981	.000
사회적 책임감	.147	.038	.193	3.878	.000
종교적 신념	.152	.031	.237	4.843	.000
경제적 여유	-.099	.038	-.126	-2.603	.010
대중매체자극	-.140	.043	-.171	-3.239	.001
가족전통문화	-.064	.048	-.073	-1.328	.185
타인기부자극	.039	.049	.048	.801	.423
지인기부자극	.053	.042	.071	1.248	.213
세제혜택	-.041	.041	-.054	-1.016	.310
수정R ² =.235, F=14.266, p=.000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부동기와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합한 기부에 대한 동기-감정-행동모형을 구성하여 한국인의 기부행동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기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고, 둘째, 기부에 대한 내적 동기는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외적 동기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기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지각된 행동통제만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넷째, 기부동기가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기부의도에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지각된 행동통제만을 매개로 기부의도에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기부행동에는 기부의도와 지각

된 행동통제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반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여섯째, 기부의도에 개인적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내재된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기부의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지각된 행동통제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등 계획행동이론 변인이 기부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정기·정은정(2011)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된 행동이론에 동기를 포함한 모형을 설정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즉 기부의도는 그 어떤 변수보다 내적 동기에 의해 형성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행동의도만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보면, 기부의도가 기부행동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기부의도와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의 분야에 따라 기부의도와 기부행동의 결정요인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정책적으로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각된 행동통제가 기부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부행동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실질적인 기부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부행동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용이하게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은 기부대상의 탐색과 매개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통한 기부도 최근 급증하는 양상에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기부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부의 내적 동기는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반면 외적 동기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세부구성요인의 회귀분석에서는 개인적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 기부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기부자의 개인적 행복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기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역할모델의 기부실천 행동에 대한 정보제공은 기부 학습과 사회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부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자들이 동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기부분야별 브랜딩이 필요하다. 분야별 브랜드화는 기부자에게 자부심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분야별 기부공동체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부자의 경제적 여유와 대중매체자극이 기부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정심과 세제혜택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기부자의 경제적 여유나 대중매체를 통한 기부 홍보, 세제혜택과 동정심에 초점을 둔 정부의 기부증대 방안은 지양하여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편의적 표집에 의해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개되어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기부행동을 일반화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비록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경로를 추출하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여러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표현으로서의 한계를 가진다. 이상에서 논의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주제인 기부자의 기부행동을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기부행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의의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강철희·구지윤·박소현(2011). 기부지역 선택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국내기부와 해외기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3): 221-253.

강철희·이민영(2009). 부유층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 부유층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 발표 세미나 발표논문.

강철희·이종은·배민경(2009). 우리나라 시민의 유산기부의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5-32.

권혜나(2011). 나눔문화 확산 정책의 현황과 전망. 「법연」 24권(Dec), 한국법제연구원.

김미숙(2010). 기부 인프라 탄탄한 미국과 영국의 기부문화. 「미래정책포커스」 제9호: 32-33.

김선우·김난도(2010). 한국, 미국, 스웨덴의 문화적 성향과 기부행동비교 : 트리안디스의 문화 유형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3(1): 61-80.

- 김영기(201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부자의 기부지속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중(2007). 공동모금제도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발전 방향. 「국회도서관보」 44(9): 22-31.
- 김유나(2002). 기부행동 및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훈(2011).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돈 태도 유형이 기부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4): 819-829.
- 김주원·김용준(2008). 자선단체기부자의 기부동기와 기부행동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37(3): 629-658.
- 박성민·김연정·이동경·김희선(2009). 기부문화 현주소 : 노블레스오블리주 절실. 「Midas」통권 66호: 64-72.
- 박세경·강혜규·이준영·정진경·한동우·박소현(2009).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소현(2011).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태규(2007). 개인기부 현황과 활성화. 「국회도서관보」 44(9): 2-10.
- 박태규·윤병호·정진욱(2008).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1(3): 79-100.
- 변광배(2008). 기부문화의 이론적 토대 : 모스, 바타이유, 데리다, 사르트르의 증여 개념을 중심으로. 「프랑스학 연구」 통권 제44호: 185-213.
- 손원익·박태규(2008).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손원익·이순태·박세경(2010).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송갑호(2010).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비윤리적 컨설팅 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우현(2007). 정치자금기부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44(9): 32-42.
- 신경희(2009).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실천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심성욱·이진우·손영근(2009). 여대생 절주 캠페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음주행동 영향요인 분석: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여대생 음주행동 이해. 「한국광고홍보학보」, 11(1): 204-247.
- 어기구(2010). 선진국의 기부문화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Noblesse Oblige). 「노동저널」 12월: 138-150.

- 유일호 외(2007).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재정포럼」 12(8): 39-55.
- 이재석·이충기(201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스키리조트 방문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 「호텔관광연구」 12(4): 1-19.
- 이정기·정은정(2011). 20대의 기부의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텔레비전 장르별 시청량, 가치성향, 계획행동이론 변인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0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전상진(2010).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정책. 「문화정책논총」 24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영정(2009).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관광객의 책임관광 행동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승희(2011).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효과: 기부기회 제공을 통한 소비자 동기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2(2).
- 허은영 외(2009).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 허은정(2011). 소비자의 윤리적 상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의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22(2): 89-111.
- 황보람·김환희(2010).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4): 125-154.
- 황창순(2010). 문화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문화정책논총」 24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Banerjee, D., Cronan, T. P., & Jones, T. W.(1998). Modeling IT Ethics: A Study in Situational Ethics. *MIS Quarterly*, March: 31-60.
- Bekkers, R.(2005). Charity Begins at Home: How Socialization Experiences Influence Giving and Volunteering. 34rd Annual ARNOVA-Conference. Washington, DC, USA.
- Bekkers, R.(2007). *Generosity and Philanthropy: A Literature Review*.
- Chang, M.(1988). Predicting Unethical Behavior: A Comparison of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 1825-1834.
- Clotfelter, Charles T.(1980).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Giving: Evidence from a Panel of Taxpay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3.
- Cronan, T. P., & Al-Rafee, S.(2008).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Pirate Software and Media. 78: 527-545.

- Dawson, S., P. Bloch and N. Ridgway(1990). Shopping Motives, Emotional States, and Retail Outcomes. *Journal of Retailing*, 66(4): 408-427.
- Deci, E. L. & Ryan, R. M.(1987). The support of autonomy and the control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024-1037.
- Drollinger, T. L. & Johnson, D. P.(1995). Life cycle, financial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charitable donors. *Proceedings of American Counsel on Consumer Interests*.(pp. 106-112). Washington D. C.
- East, R.(1993). Investment Decisions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2): 337-375.
- Friedman, M.(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for the NBER.
- Harrington, S. J.(1996). The Effect of Codes of Ethics and Personal Denial of Responsibility on Computer Abuse Judgements and Intentions. *MIS Quarterly*, September: 257-278.
- Harter, S.(1981). A Model of intrinsic mastery motivation in children: Individual difference and developmental change. In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4, 215-255.
- Phillips, W. J.(2009). Senior casino motivation and gaming intention: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nhattan, Kansas: Kansas State University.
- Shaw, Deirdre S. and Edward Shiu(2003). Ethics in Consumer Choice: A Multivariate Modeling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7(10): 1485-1489.
- Wiepking, P. and Maas, I.(2009). Resources that make you generous: Effects of human and social resources on charitable giving. *Social Forces* 86: 1973-1996.

* **이용규**: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Seton Hall University 정치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정보통신 정책, 재정정책 등이다(james@cau.ac.kr).

* **송용찬**: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로 강의 중이다.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관광레저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지역개발, 인사관리, 정책가치, 통일정책이다(syc2070@naver.com).

논문 투고일: 2012.8.20 / 심사일: 2012.9.17 / 게재확정일: 2012.9.27